

# 濟州島의 婚俗

— 婚禮의 節次를 中心으로 —

姜 榮 鍾

## 차 례

I 序	6) 率婦하러 갈 때
II 節 次	7) 신부집 잔치
1) 問 婚	8) 신랑집 잔치
1) 사 주고 남	9) 사 둔 잔치
1) 막 편 지	10) 새 살 립
4) 이 바 지	III. 結 語
5) 가 문 잔 치	

## I 序

人間은 모름지기 삶을 營爲함에 있어 반드시 通過해야 될 儀禮가 있는데, 우리는 이를 通過儀禮라 한다.

이 儀禮에는 出生·成年式·婚禮式·喪禮式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地域的으로나 時代的으로 生活樣式이 다르고 變貌해짐에 따라 다소 다른 儀式을 갖기도 한다.

이 곳에서는 이들 중에서 比重이 크고, 比較的 調査하는데 容易하다고 볼 수 있는 婚禮式에 關해서만 叙述하기로 한다.

옛부터 婚禮를 치룬다 함은 한 男性과 한 女性이 結合하여 새로운 家庭을 이룸으로써, 先祖의 뒤를 이어 後世에 傳하는 일이라 하여 慎重하게 치뤄왔다.

이러한 婚禮는 그 目的에 따라 여러 角度에서 分析할 수 있겠으나, 이

곳에서는 濟州本島에서 行해졌거나 다소 殘在해 있는 面貌를 民俗의 立場에서 叙述하려 한다.

그러므로써 本島의 特異한 점들을 살핌과 아울러 우리 先祖들의 知慧와 傳統의인 生活樣式을 理解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곳에서는 婚禮의 範圍를 넓게 보아 向婚에서부터 禮를 치른 뒤 社會的으로 公認된 夫婦로써 새로운 살림을 始作할 때까지로 하고, 그 過程上에 結付되고 있는 慣習的인 面까지도 挿入하였다.

이 곳에서 叙述할 資料는 本島를 一周하면서 適當한 對象者를 選定하여 直接調査한 것임을 밝혀 둔다.

## II 節 次

### 1) 向 婚

장가들만한 年令에 達한 子女가 있는 집안에서는 各己 相對方을 구하기 위하여, 웃어른들이 모여가지고 婚事를 議論하게 된다. 먼저 男家에서는 父母가 中心이 되어 가까운 親族들이 모여서 新婦감을 物色하게 된다.

대충 家內에서 意見이 모아지면 女家에 仲媒人을 보내는데, 本島에서는 仲媒人을 <중매쟁이> 또는 <중진내비>라고 한다.

仲媒人으로는 동네에 專門的으로 하는 사람이거나, 兩家를 잘 아는 사람이 하는데, 간혹 親族중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仲媒人은 兩家를 往來하면서 婚事를 成就시키기 위해 여간 힘쓰지 않는데, 이러한 役割을 <중진한다>고 한다.

한편, 女家에서는 仲媒人을 通해 <向婚>이 들어오면 男家에서와 같이 婚事를 議論한다. 그런데 仲媒人을 通하여 傳하고 들은 터라 疑心이 나거나 미덥지 못한 점이 있으면, 집안 사람이나 남을 시켜 搜所聞을 해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라면 男家에서도 마찬가지다.

本島에서도 婚事를 議論하는 問題는 當事者에 대한 問題라기 보다는 집안을 重視하는 傾向은 마찬가지겠지만, 近來에 들어와서는 顯著하게 緩和

되어 가고 있다.

## 2) 사 주 고 남

仲媒人을 통해 兩家에서 대충 婚事가 合議되면, 許婚의 表示로 女家에서 父親이 女息의 姓名과 生年·月·日·時(四柱)를 적어 仲媒人에게 내어 준다. 그러면 仲媒人이 그 <四柱>를 갖고 오는데, 이를 <연세 적어 온다>, <사주 받아 온다>라고 한다.

女子의 四柱를 男家에 건네줌으로써 일단 婚姻은 許諾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男家에서는 四柱를 받게 되면 父親이 男女의 四柱를 갖고서 <정시>한테 宮습을 보러 간다. <정시>라면 四柱를 놓고서 男女의 宮습이 좋고 나쁜가를 가리는 專門인 사람으로, <정시>가 四柱를 맞춰 보는 것을 <사주고남>이라 한다.

이때, 宮습이 좋고 맞게 되면 <정시>가 婚禮(잔치)를 올릴 날과 시간을 定하여 준다. 그러나 서로 宮습이 맞지 않게 되면 女家에 四柱를 돌려주는데, 이로써 破婚이 되는 境遇는 흔히 볼 수 있다.

## 3) 막 편 지

男家에서는 <정시>로부터 禮式을 올릴 날을 받게 되면, 吉日을 擇하여 女家에 擇日한 날과 시간을 記入한 片紙를 갖고 간다. 이를 <막편지 가져 간다>, <큰 글월 가져 간다>라는 말을 한다. 이 편지(막편지)는 아래 記載한 書式과 같이 禮式을 舉行할 날자와 시간을 記入한 書信으로 白紙에 붓으로 써서 봉투를 만들어 그 속에 넣은 것이다.

男家에서는 父親과 仲媒人이 이 <막편지>를 갖고 가는데, 곳에 따라서는 新郎도 같이 가기도 한다.

이 날, 女家에서는 兩親과 가까운 親族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新郎側 一行을 맞이하여 <막편지>를 받고 간단한 宴會席을 마련한다. 男家에서는 <막편지>만 갖고 가지 않고, 쌀, 고기(豚肉), 술 등을 함께 갖고 가서

宴會의 材料로 쓰게 한다든가, 新婦의 옷감 한 벌 정도를 갖고 가는 게 常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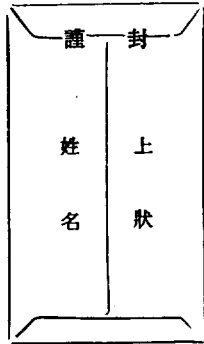
이러한 節次를 보면 오늘날 行해지고 있는 <約婚式>과 別差가 없는 것으로, <約婚式>의 前身이라 하겠다.

이 宴會가 끝남으로써 仲媒人의 役割도 끝나는데, 本島俗談에 <중매 잘 하면 술이 석 잔이요, 중매 못하면 뺨이 석 대>라는 말도 있듯이 仲媒人의 役割도 쉬운 일은 아니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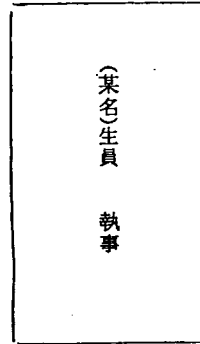
<마 편지> 書式

봉투 書式

<뒷면>



<앞면>



時維 孟(秋)

雅候百福儀之第(幾)子某(名)年既長成未有

伉儷側聞貴宅有令(女)云高門結族之儀

涓吉俸 ○年○月○日○時

謹行納幣之儀餘不宜伏惟

歲在 ○年○月○日

(某貫)后人(姓名)上狀

#### 4) 이 바 지

禮式을 올릴 날(잔치날) 1~2일 전에 行하던 節次로, 本島의 境遇에만 나타나는 特異한 婚禮上의 한 要件이라 하겠다. <이바지>는 男家에서 <잔치날> 전에 吉日(偶數日)을 擇하여 女家에 가져가는 婚姻物資를 말한다.

그것은 <잔치날>에 쓰이는 쌀, 고기, 술, 계란 등으로, 그 당시로 봐서는 <잔치날>에 必要한 物資의 太半을 차지하는 品目들이라 하겠다. 이로 미루어 봐도 예전에는 男家에서 負擔이 莫重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바지>를 예전에는 동네 使換인 下人을 빌어서 보내는데, 보통 등에 지고 가며, 먼 곳이면 소를 利用하여 실어 갔었다 한다. 이 때는 대개 <삼촌>이 同行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삼촌>이 손수 가져가는 일도 흔하다.

<이바지>를 보낼 때는 그 品目を 알리기 위해 白紙에다 品目別로 數量을 記入하여 함께 보낸다.

이 <이바지>의 品目과 數量은 地域과 家勢에 따라 다소 差가 있으며, 時代的으로도 조금씩 變貌해 오다가, 近來에 와서는 거의 사라져 그 殘存을 찾아 보기가 어려울 程度다.

그러면 이 <이바지>를 가져가는 것이 本來的인 意味는 무엇인가를 究明하기 위해, 먼저 이에 對한 島民의 觀念을 整理해 보면 세 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

첫째는 <이바지>를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둘째는 女家の 許諾을 받고서 가져가는 경우 셋째는 女家の 貧困으로 男家에서 <잔치> 비용을 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다. 이러한 觀念은 本來 <이바지>를 보내는 것이 당연한 도리로 생각되어 오던 節次가 時代思潮의 變化에 따라 新婦側에서 兩家の 家勢의 平等을 보이기 위하여 받지 않겠다는 事例가 나타남으로써, 차츰 그 本來的인 意味를 喪失하여, 받는 집과 안 받는 집이 混合되어 내려오다, 오늘날에는 사라져 버린 節次임을 推定케 한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이바지>를 보내는 것이 義務化했었다는 점과, 그당

시 <이바지>에 必要한 物資의 費用, 이외에도 本島에서는 <잔치>를 하게 되면 <말 판다>, <아들 판다>라는 人身賣買의인 말을 使用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原來는 新婦를 데려옴으로써 그 代價로 女家에 <이바지>를 보내던 節次가 차츰 弱화되어 오다가, 오늘날에는 없어져 버린 賣買婚의 形能가 아닌가 한다.

결들어서 <이바지>의 品目과 數量을 地域別로 一覽하면 다음과 같다.

<1974년 3월~8월 調査>

번호	對 象 者				品 目 및 數 量					
	居 住 地	姓 名	性 別	年 令 (才)	말(말)	돼 지 (마리)	닭 (마리)	계 란 (개)	술 (되)	기타
1	제주시 이호 1동	김○○	남	78	10	1	2~4	100		
2	〃 이호 2동	김○○	〃	62	10	1	2	30~50	15	
3	〃 3도 1동	송○○	〃	64	10	1		60	(1춘)	
4	〃 삼양 2동	강○○	〃	61		1		50	15	(1춘)
5	북군 조천면 신촌리	김○○	〃	68	10	1	2	50~100		
6	〃 구좌면 평대리	강○○	〃	70	3~4	1	2	30	10	
7	〃 애월면 남음리	강○○	여	64	10	1	2	30		
8	〃 한림읍 협재리	김○○	남	71	15~20	1		20~30	10	생선
9	〃 한경면 고산리	송○○	〃	77	10	1	3~4	20~30	15	1 못
									(1춘)	〃
10	남군 성산면 오조리	고○○	여	75		1	2	100	15	
11	〃 표선면 표선리	송○○	남	70		1	4	100	(1춘)	
12	〃 남원면 남원리	김○○	〃	65	10	1	1~2		10	
13	〃 서귀읍 토평리	강○○	〃	60	3~4	1	2	30		
14	〃 중문면 하례리	강○○	〃	71	10	1~ $\frac{1}{2}$				
15	〃 안덕면 덕수리	×	×	×	10	1~ $\frac{1}{2}$				
16	〃 대정읍 보성리	이○○	남	79	10	1	3~4	20~30	15	(1춘)

### 5) 가 문 잔 치

<잔칫날> 전날이 되면 兩家에는 가까운 동네 사람이나 親族들이 모여서 <잔칫날>에 必要한 飲食이랑 材料들을 만들기에 奔走하다.

날이 어두워 지고 일을 거의 마무리 짓게 되면, 親族들은 방에 모여 앉아서 작만한 飲食을 내놓고서 簡單한 酒宴을 베풀는데, 이를 <가문잔치>

라 한다.

이 때는 老少를 막론하고 <반>이라 하여 돼지고기 서 집, 떡 등 몇 가지를 접시에 넣고서 나눠 준다.

이 節次는 親族(친당)끼리 모여서 <잔치>에 힘겨운 일들을 도와 <잔치집>에 負擔을 덜어주는 固有한 習俗으로 오늘날까지도 내려오고 있다.

<가문잔치>는 <잔치날> 전날에 行하고 있는 親族間의 <잔치>임을 알 수 있다.

親族들의 扶助는 <가문잔치>날 전에 하지만, 近來에 와서 친구들은 이날 扶助를 거의 하고 있어 接待하기에 <잔치날>에 못지 않게 奔走하다.

#### 6) 率婦하러 갈 때

<잔치날>이 밝으면 <新郎집>에서는 먼저 先祖(4代)에게 告祀를 지낸다. 이 때는 祭床을 함께 陳設하고서, 부친이 祝文을 告한 뒤에, 떠날 準備를 서두른다.

그런데, 한 老人에 依하면 예전에는 이 날부터 新郎은 어른이 된다 하여 <成冠>을 했었다 하는데, 告祀를 지낸 후 新郎의 머리에 <상투>를 차게 하며, <新婦집>에서도 마찬가지로 新婦의 머리를 풀어 <전지 머리>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儀式은 冠禮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婚禮過程에 插入되어 나타나는 通過儀禮로, 우리 나라 冠禮의 特色이 하나라 하겠다.

告祀가 끝나면 父親이 新郎을 불러 앉혀 놓고서 몇 가지 訓戒를 하고 나면, 대개 新郎이 婚書 卽 <예장편지>를 쓰고 나서 <홍세합>이 꾸며진다. <홍세합>은 新婦의 옷감인 幣帛과 <예장편지>를 넣는 함으로, 幣帛으로는 미წ 2필을 넣기도 하고 광목이 나서부터는 광목 1~2필을 넣고 있다. 함속에는 幣帛을 먼저 넣고 그 위에 <예장편지>를 넣어 덮은 다음 붉은 보자기로 두 겹 싸다.

다음은 마루의 앞문쪽에 床을 차려 祭物을 陳設한 다음, <홍세합>을 상위에 놓고서 門前祭를 지낸다. 家內의 主神인 門神에게 報告하고 나서,

〈홍새함〉을 〈하님〉(여자하인)에게 건네준다. 그러면 곧장 함을 지고 大門 밖으로 나서면, 뒤이어 新郎, 新婦를 싣고 올 가마(獨輜), 다음에 〈우시〉順으로 따라 나선다. 〈우시〉라면 新郎을 輔弼하는 옷어른으로 대개 삼촌 정도로 宗家에서 한 사람, 外家에서 한 사람씩 두 사람이 간다.

大門을 나서부터 新郎은 말을 타고서 부채로 입을 가리고 가는데, 이는 新郎의 靜肅한 品位를 보이기 위함이라 한다.

이때 一行으로는 下人들이 몇몇이 따르며 家勢가 있는 집에서는 많은 下人들을 거느려 官行의 位勢를 떨치며 갔었다 한다. 그 下人들 중에는 〈소리꾼〉이 新郎 左右에 있어 〈호옹~허영~〉하는 소리를 내면서 가는데, 이 소리는 婚姻行列이 지나감을 알리는 意味가 있어, 소리를 듣고서는 동네 사람들이 婚姻行列을 구경하러 나왔다 한다.

예전에는 新郎이나 〈우시〉外에도 〈하님〉은 말을 利用하였으나, 오늘날에는 全部 車便을 利用하고 있다. 그 當時는 禮服이나, 가마, 말, 이외에도 必要한 物件들을 家門에 따라 갖추어 두었다가 使用하는 境遇도 있었으나, 그렇지 못하면 동네에 있는 것들을 빌어 쓰며, 下人들도 동네에서 샅을 주어 일을 부렸다 한다.

近來에 와서는 그런 事例는 없어지고 〈홍새함〉도 〈우시〉가 갖고 가며, 〈홍새함〉이 따르지 않는 境遇도 있다. 그리고 〈우시〉外에도 〈둘러티〉라 하여 新郎 친구 두 사람 정도가 代表로 더 따라 간다.

〈예장편지〉의 書式은 다음과 같으며, 봉투서식은 〈막편지〉 때와 같다.

時維孟(秋)

尊体百福篋之第(幾)子年既長成

未有伉儷伏蒙

尊慈許以令(女)貺室茲有先人之禮

謹行納幣之儀不備伏惟

尊照上狀

○年○月○日

(某貫)后人(姓名)謹拜 ㊦



## 7) 신부집 잔치

新郎一行이 <홍새함>을 드릴 시간에 맞춰 新婦집 大門 앞에 到着하면, 먼저 <우시>가 <홍새함>을 받아 들고서 新婦집 <난간>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新婦집에서도 <우시>로 갈 사람이 <홍새함>을 받으러 <난간>으로 나서면 서로 揖을 하고 나서 <홍새함>을 건네 준다. <마루>로 들어가서 <홍새함>을 祭物을 陳設한 床위에 놓은 다음, 함을 열어 <예장편지>를 檢閱한다. 이는 <예장편지>에 틀린 곳이 없는가와, 新婦집에서 許婚한 新郎이 틀림없는가를 確認해 보는 것이라 한다.

예전에는 <예장편지>의 檢閱이 嚴해 틀린 곳이 있으면, 필묵을 가지고 갔다가 그 앞에서 고쳤다 한다. 禮狀 檢閱이 끝나면 祭를 지내는데, 잔에 술을 따라 올리고서 <잡식>을 한다. <잡식>이란 祭床 위에 모든 祭物을 조금씩 떠서 술잔에 넣고 또 함 속에 있는 옷감의 울을 뽑아내서 넣는 것이다. 이 <잡식>한 것을 지붕 위에 올리므로써 祭가 끝나는데, 이러한 儀式을 <문제>, 또는 <문전제>라고 한다.

祭가 끝나면 新婦 親族 중에서 新郎보다 한 두살 밑의 男子(중방)가 나와서, 大門 앞에 있는 新郎에게 揖을 하고 나서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면, 그때야 비로서 新郎 一行이 집안으로 들어간다.

新郎이 <마당>을 거쳐 집안으로 들어 갈 때는 반드시 <난간>을 왼발로 먼저 딛고서 筵해 놓은 방으로 들어간다.

新郎과 <우시>는 집안으로 모시고 <하님>이나 下人들은 마당구석이나 <헛간>에서 待接한다. 新郎과 <우시>는 대개 방을 따로 했으나, 오늘날은 같이 쓴다. 각 방에는 新婦집 웃어른(男老)인 <대반>이 앉아 있다, 迎接한다. 얼마 없으면 하님이 밥상을 들고 와서 新郎이 먹기 前에 상 위의 모든 飲食을 밥그릇 뚜껑에 조금씩 떠 넣은 다음 상 밑에 놓고 나간다. 이것은 食前에 <악새>(雜鬼)를 防止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럭저럭 食事が 끝나면 <대반>이 引導下에 우시들이 <마루>로 나가 簡單한 酒案床을 차려 놓은 자리에서 新婦의 近親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

다. 이것을 <사둔열맹>이라 한다.

그리고 나면 곧 新郎 一行은 新婦를 데리고 當日로 歸家한다.

新郎집에서는 新郎이 到着하면 本格的인 <잔칫집>으로 化하여, 동네 사람들이랑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扶助를 갖고, 祝賀하러 모여 들면 <잔칫집>의 분위기는 絶頂에 達하게 된다.

普通, 扶助는 둘로 나뉘 볼 수 있는데, 이는 親族(관당)간의 扶助와 동네사람 (一般人)의 扶助다. 親族인 경우는 쌀 한 말 程度이고, 一般人은 쌀 두 되 程度로 하며, 돈으로 代身하는 境遇도 흔하다. 이러한 習俗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데, 예전에는 닭이나 계란과 같은 것들로도 扶助를 했었다 한다.

新婦가 新郎집으로 떠날 때, 예전에는 新婦는 <고팡>(고방)에서 나와, 가마를 탔었다 한다. 이날 新婦가 갖고 가는 것으로는 이불 한 두채, 베개, 요강, 빗첩(빗 넣는 함) 등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차츰 加重되어 살림에 必要한 세간(家具)들을 마련해 간다. 近來에는 <세간>을 <잔칫날>에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개 미리 보내고 있다.

新婦가 집을 나갈 때나 新郎집에 들어갈 때면 소금을 뿌리는데, 이는 本島에서 다른 節次上에도 흔히 나타나는 習俗으로 <동티>가 나지 않게 防止하는 것이다.

新婦집을 나서면 婚姻行列은 올 때와 같이 先頭에 新郎, 新婦, 兩家の <우시> 順으로 新郎집을 向해 간다.

이 때도 역시 <소리꾼>이 소리를 내면서 婚姻行列이 지나감을 알린다.

그 當時 婚姻行列은 高官行列이라는 意識에선지 官行이나 葬列보다 優先權이 있었다 하며, 가끔 婚姻行列 끼리 마주칠 때는 서로 윗쪽으로 갈려고 싸우는 경우가 있다 한다. 이는 윗쪽으로 감으로써 後에 잘 산다는 意味가 있는 것으로, 이때는 길의 兩側이 南北이면 남쪽이, 東西면 東쪽이 위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本島에서는 禮式이 없이 新婦를 곧장 新郎집으로 데려가는 게 通常이나 넉넉한 집에서는 자랑삼아 新婦집에서 올리는 <올리친심>이

라는 本土와 類似한 禮式을 올리는 집도 없지는 않았으나, 이는 特別한 境遇라서 略하기로 한다.

## 8) 신랑집 잔치

當日로 婚姻行列이 新郎집에 到着하면, 가마를 <난간>이나 <마루> 위에 내려 놓고 新郎이 가마를 열어 新婦를 定해진 房으로 案内한다. 新郎집에서도 대개 新婦와 <우시>는 房을 따로 定하나, 房이 없을 때는 함께 使用하기도 한다. 各 房에는 <대반>이 앉아 迎接하는데, 다른 것은 新婦房의 <대반>으로 女子 웃어른을 앉힌다는 点이다.

밥상이 들어 오면 新婦집에서와 같이 <하님>이 먼저 <잡식>을 하고 난 後에야 수저를 든다. 얼마 후 食事が 끝나면 역시 <대반>의 引導下에 新婦側 우시들이 <마루>로 나가서 <사둔열매>을 치르고, 이것이 끝나면 新婦側 一行은 新婦를 남겨 두고 날이 저물기 前에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新婦는 房에 들어 오면 밥상을 받기 前에나 後에도 <고팡>을 向하여 고개를 숙이고 양전하게 앉아 있어야 한다. 이 같이 <고팡>을 向하고 있는 것은 살림에 必要한 穀食이랑 主된 것들을 <고팡>에 넣어 두고 있다는 点과 女子들의 生活과 直結되는 곳이라는 点에서 向해 앉는가 싶다.

新郎집에서는 新婦가 到着하면 活氣가 돌아 本格的인 <잔치>가 始作된다. 이 때부터는 祝賀客이 모여 들어 손님 接待에 일손이 奔走하다.

그러다 날이 저물면 本島에서는 新郎, 新婦가 新房에 들기 前에 동네 靑年들이 모여 들어 新郎을 붙잡아 놓고서 알곳은 行動을 많이 하는데, 이를 <신랑 달문다>라고 한다. 이 때는 新郎의 見聞을 시험해 보려고 漢字成語에 對한 수수께끼식 問答을 하는가 하면, 新婦를 데려온 代價로 노래를 시킨다든가 먹을 것을 가져오라는 등 新郎을 마음껏 괴롭히면 新郎집에서 술과 안주를 내어 푸짐하게 待接한다.

이러한 習俗은 예전 같이 新郎을 때린다거나 껌꾸로 묶어 세우는 등 그

렇게 騷亂하지는 않으나 오늘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實情이다.

이렇게 해서 밤이 깊어지면 新郎은 新婦가 있는 新房으로 들어간다. 간혹 잠자리에 들게 되면 집안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新房을 엿보는 경우가 있어 <병풍>을 문쪽으로 치고 잔다고 한다.

### 9) 사 둔 잔 치

잔치 다음날 아침이 되면 新婚夫婦는 그때야 비로소 집안 웃어른이나, 親族들에게 인사를 올린다. 夫婦가 함께 큰 걸을 하고 술을 한 잔씩 權하고 나면, 이들은 미리 마련해 두었던 祝賀膳物을 夫婦에게 주면서, 祝福하여 준다.

朝飯이 끝나면, 父親은 新郎, 新婦를 데리고 가까운 親族 몇몇과 함께 新婦집(사둔집)에 <사둔>間的 禮로써 人事를 드리러 간다. 이 때는 술, 고기(豚肉), 떡 등을 갖고 가서 待接한다.

新婦집에서는 兩親과 가까운 親族들이 <사둔> 一行을 鄭重히 맞이하여 서로 <새사둔>間的 人事를 나누고 나면 주연을 베풀어 歡談을 나눈다. 얼마쯤 있다 一行은 新郎과 新婦를 남겨 두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나면 新婦는 媿家親族들에게서 받은 膳物을 親庭 親族들에게 보인다.

그러면 新婦母親은 膳物을 준 媿家親族들에게 그 答禮로 대개 버선을 準備한다.

그 後 新婦가 첫번째로 맞는 설이 되면 親庭에서 準備해 두었던 버선을 갖고 와서 媿家親族들에게 한 켤레씩 나누어 드린다.

新郎과 新婦는 新婦 집에서 하루밤을 묵고 나서 新婦의 父親 및 近親과 함께 <사둔>間的 人事를 드리러 新郎집으로 간다.

이 때도 역시 待接할 飲食을 갖고가는데, 술, 고기(豚肉), 시루떡 한 시루를 고스란히 갖고 가는 例가 普通이다. 그 一行은 新郎親族들과 서로 人事를 나눈 後 待接을 받고서 돌아가버리므로써 일단 本島의 (잔치)는

끝이 난다.

이 같이 <사둔>間이 人事往來를 하면서 酒宴을 베푸는 것을 <사둔잔치>라 하는데, 近來에는 <잔칫날>에 行하고 있는 <사둔열병>과 함께 行하여 버리는 事例가 흔하다.

## 10) 새 살 림

<새살림>을 시작하는 時期는 집안에 따라 다르며,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規定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는 新郎이나 新婦가 婚姻年歲이 낮은 탓으로 살림하기에 어려움 을 느낀다고 하여, 父母들이 2~4年 後에야 살림을 마련해 주었다 한다.

어떤 境遇는 <새살림>을 시작하는 節次로 新婦가 婚姻해서 몇 일이 지나면 親庭에 가서 살다가 첫애기를 낳으면, 新郎집에서 新婦를 데리고 와서 살림을 하게 하는 事例도 있었다.

그런데, 本島에서는 新婦가 婚姻한 後에도 親庭엘 자주 간다든가, 親庭에 머무르는 事例가 흔한 것은 本島의 地緣的인 特殊性에 基因한 것이라 보겠다.

## Ⅱ 結 語

以上 本島의 婚禮上의 節次를 叙述해 왔는데, 거기에서 特徵的인 面이라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간추려 보기로 하겠다.

첫째 : 本島에서도 仲媒婚이라는 것은 本土와 같겠으나, 그 節次上에 있어 女家에서 許婚이 表示로 <四柱>를 仲媒人을 통해 男家에 건네주면, 男家에서는 宮숨을 보고 擇日를 하여 女家에 보내고 있다는 점.

둘째 : <이바지>에 對해서는 略述해서 알겠지만, 男家에서 <이바지>라 하는 婚姻物資를 女家에 보낸다는 것은 賣買婚的인 面이 아닌가 하는 점.

셋째 : 婚禮節次上에 禮式을 略해 버리든가, 簡素하게 지내고 있는 점은 原來 本島에는 禮式이 없었던 것이 本土와의 關係에 依해 禮式이 收容되어

複合된 儀式으로 行하고 있다는 점.

네째 : 本土에서는 <잔칫날> 新郎이 新婦집에 가면 묵었다, <新行>이라 하여 新婦를 데리오는데, 本島에서는 當日로 新婦를 데리고 온다는 점.

다섯째 : 近來에 와서 新婦집에서 살림에 必要的한 <세간>을 負擔하고 있다. 이는 原來 個人的인 用品에 불과했던 것이 地理的으로 가까운 全羅地方과의 關係에 依해서 차츰 加重되어 <세간>을 가져 가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

여섯째 : <잔치>라 하면 新郎과 新婦가 婚姻한다는 것 이외에도 <가문잔치>니 <사돈잔치>니 하여 <잔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은 血緣的, 地緣的인 面이 强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本島의 婚禮는 古來로부터 獨自的이며, 土俗的인 婚禮節次가 있었던 것이 時代思潮의 變化와 本土와의 往來가 심해짐에 따라, 다소 變貌되어 本土婚禮와의 複合된 儀式形式으로 舉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國 三>